

# 문학 <보기> 먼저 볼까 나중에 볼까



의문편

## 문학 <보기> 앞에서 볼까 뒤에서 볼까 ① 의문편

<보기>를 먼저 읽어야 한다가 읽지 말아야 한다가 매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앞서 <보기>먼저파와 <보기>나중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까합니다.

일단 <보기>먼저파들의 주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기는 출제자가 지문을 보는 창이다. 그렇다면 해석의 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안보느냐.  
분명 도움을 받는 지점이 있다.

이번에는 <보기>나중파의 주장을 정리해볼까요?  
보기를 먼저 보게되면 오해석 혹은 과적합의 상황에 도달한다. 지문에서 해야할 것을 해두고 문제를 풀 때 참조를 하여 푸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원 문학을 접하며 얻어낸 문학적인 감상과 허용가능성으로 밀어 붙이고 <보기>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자.

솔직히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언급하기 전에 제 <보기>처리법부터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보기>가 도움이 되냐 안되냐부터 판단을 합니다.

어? 그러면 결국 <보기>먼저 읽은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보기>를 숙 봤을 때 '읽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기>에 대한 접근에 앞서서 먼저 <보기>의 성격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분명 문학의 감상 방법에는 네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1. 표현론적 관점 2. 반영론적 관점 3. 내재론적 관점 4. 효용론적 관점

와~ 이거 내신대비할 때 봤던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 <보기>는 저 네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거 도움이 되나요? 직접 물어보나요? 일단 시험장에서 사용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게 대체 뭘까요?

25년도 수능을 예시로 보면서 바로 갑시다.

문학 보기를 다 가져왔고 여기서 먼저 분석을 하고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분석을 먼저 해서 어느 부분이 지문에 직결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다음편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어찌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번편은 의문을 제기하는 파트이고

다음편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늘여서서 죄송하지만 다쓰면 너무 길어져요...

〈 학습 활동 〉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뒷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친구는 솔직히 <보?기> 인것같아서 언급안할라다가 가져는 왔습니다.

#모략 #인물 간 소통 양상

먼저 이 두가지가 지문을 파악하는데 가벼운 도움을 주었을겁니다.

〈 보 기 〉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영웅소설

보자마자 공부를 좀 했다면 이러한 것이 떠올랐을테죠.

1. 고귀한 혈통
2. 비정상적 출생
3. 탁월한 능력
4. 시련
5. 조력자의 도움
6. 고난 극복
7. 행복한 결말

(근데 그래서 이제 뭐함?)

#가정소설

처첩갈등형소설(쟁총형소설)로 연계받 좀 세웠을테고요..

#남주인공을 매개

장면을 끊으며 독해할 때 저는 중첩된 인물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2509 광한루기에서 김한이 중첩된 인물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문제화 되는 것을 보고 수능때도 꼭 장면별로 중첩된 인물을 잡고 가자고 했었습니다. <보기>에서 명시해줬네요.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

‘금섬, 월매’ 금섬이는 죽었지만 월매가 등장했고 문제에서도 물어봤어요.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

‘와락’

〈 보기 〉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써 형상화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

화자의 상황이 바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왜 치유하지 못했지? 상처받았나? 오 내면? 정서인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

아...화자의 상황은 상실인가봄다. 사랑했으나 이별했고 그에 따른 당연한 정서인 그리움이 제시된건가보다. 하지만 화자는 이 그리움을 떠올릴때면 상실의 고통에 몸서리쳤겠구나. 그렇기에 복합적이라고 했을테고....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 부분을 발견하면 복합적인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왜죠? 정확요 ‘(나)에 나타나 있는’이기에 일반론을 논하고 있지 않아요. (나)라고 특징을 해주었습니다.

34번 고전시가 갑민가의 <보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 보기 〉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

쭉 읽고 갔다면 오...수필 할만한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읽고 저 말에 맞는거만 잘 연결지면 될 것 같은데요?

음 뭐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 보기 〉—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회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아 그렇구나 배꼽이 사라졌구나. 이걸 아무이유없이 줄리가 없지. 그런데 이걸 보기를 봐야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이였을까? 당연히 공부를 좀 했다면 지문내용에서 바로 파악 가능하지 않나? 배꼽이 사라졌으면 사라진것 일테고 소설을 쓴 의도가 그냥 배꼽이 없어졌어용ㅠ 일리도 없으니까.

이건 지문 읽으며 파악하고 와서 문제풀며 봐도 무방했습니다.

## —〈 보기 〉—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안정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

대화체 말고는 언어갈게 없었습니다. 연계를 공부해봤다면 이미 알고있었을테고 몰랐다 하더라도 가볍게 읽다 보면 대화적 구조인 것을 눈치챘을겁니다. 왜냐? 이걸 기출 좀 분석해봤으면 돌이켜 대화오갔으니 대화적 구조군 하는 판단을 했을테니까요.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저러한 부분은 독이든 성배라고 생각합니다. 왜까요?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을 보면 일반론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가)에서 안드러날수도 있어요. 그렇게되면 어저지로 해석하다가 큰일납니다.

앞의 현대시와는 아예 다른 상황입니다.

일반론적 전개를 하면 그 부분은 〈보기〉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모든 걸 걸수는 없잖아요.

일단 25년도 수능 문학<보기>에 대한 분석을 다 해보았습니다.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별로 취해야할 태도, 회독에 따른 분석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